

#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23일 開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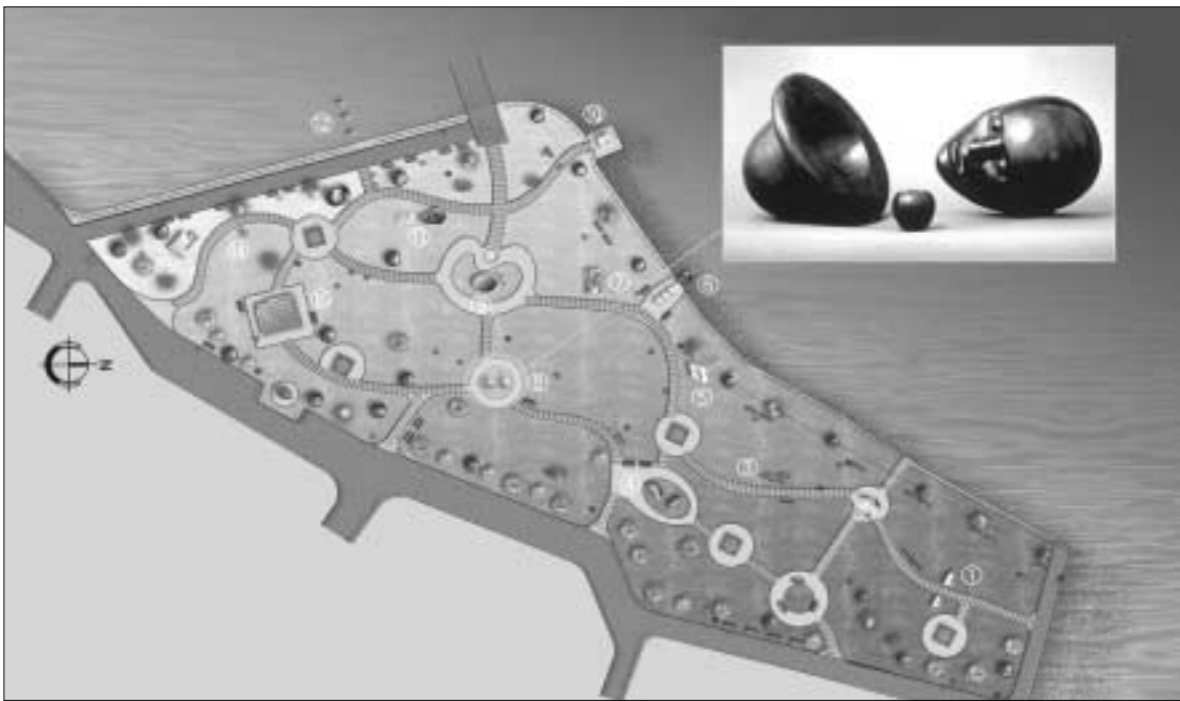
## 主題 ‘평화(平和)의 뜰 - 자연과 예술공간과의 교감’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이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23일 개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포천의 명소 산정호수에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리는 조각공원을 조성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조각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 주제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포천의 지리적 특성과 민족의 염원, 그리고 자연과의 어울림을 함축해 놓은 '평화(平和)의 뜰 - 자연과 예술공간과의 교감'으로 정해졌다.

심포지엄에는 일본의 Keiji Uemtsu (게이지 우에마스), 중국의 Suí Jian Guo (수이젠 귀), 미국의 A. E. Ted Aub (테드 압), 호주의 Greg Johns(그레그 존스), 독일의 Anke Mellin (안케 멜린),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진모, 김중호, 박상숙, 박상호, 신현중, 이봉용, 이일호, 이종민, 임승오, 정 현, 조성복, 최명곤 등 국내외 저명 조각작가 17명이 참가해 "떠있는 돌, 판다(panda) 기념탑, 돌의 초상, 깃발, 꿈꾸는 자의 방, 조용한 아침의 나라 등, 17점의 작품을 조각한다.

산정호수 조각공원은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변에 1만3천383㎡ (4천048평) 규모로 조성되며, 작가들



포천시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계획도 및 조각공원에 들어설 미국작가 A. E. Ted Aub의 브론즈 작품 'Mada Mim Adam'

은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심포지엄 기간동안, 조각공원 조성부처 10월중에 완성될 예정이다. 한편, 포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막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서 펼쳐지며, 이어 조각가와의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또 심포지엄 기간 동안 오는 27일에는 산정호수 한화론도 백운출에서 '평화의 뜰'이라는 주제로 참여 조각가와 미술평론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화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韓國의 선비정신 · 3

## 살아 돌아온 함흥차사(咸興差使)

성석린(成石璘)

1338: 고려 충숙왕 7~1423:세종5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호는 독곡(獨谷), 본관은 창녕, 여안(汝安)의 아들,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 성균관 사성 지신사(知申事:도승지), 1384년(우왕10) 밀직제학으로 왜구를 격퇴하고 수성좌리공신(輸誠佐理功臣)이 되었으며 창원군(昌原君)에 봉해졌다. 이어서 예문대제학·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올랐다.

조선조 건국에 있어서는 이태조를 도와 관헌성부사 문하우정승 좌리공신 창원부원군에 봉해졌고 그후 영의정에 올랐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 방원은 신의왕후 한씨 소생으로 태조가 창업할 때 가장 공이 많았다. 그러나 세자(世子)는 정도전 등의 동으로 신덕왕후 강씨 소생인 방석(芳碩)으로 정해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방원은 군대를 동원, 세자책봉에 동조했던 정도전, 남은 등을 죽이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원을 제거하는 일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대노한 태조는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주고 방중에 함흥관저로 떠나 버렸다. 정종은 2년만에 아우 방원에게

선위하니 이가 태종이다.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는 했으나 태조가 자기에게 불만으로 환궁하지 않으므로 부왕을 환궁하게 하기 위하여 문안사를 종신종 가운데서 차출하여 보냈으나 가는 문안사마다 추살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한번가면 돌아오지 않을 경우로 그것을 알컬어 함흥차사(咸興差使)라고 부르는 말은 이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더 이상 함흥차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성석린이 지원하고 나섰다. 태조와 친분이 두터운 그는 자기가 태조의 마음을 풀리고 오겠다고 자청한 것이다. 태종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그는 무명옷에 백마를 타고 떠났

다. 함흥에 도착하자 그는 말에서 내려서 나그네가 하듯 밥을 지었다. 밥짓는 연기가 나자 멀리서 바라보던 태조가 그에게 환관을 시켜 물어 왔다. 성석린은 환관에게 붙임이 있어 이곳을 지나가다 낚이 저물어 말도 먹일 겸 투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관이 들어가서 그대로 아뢰자 태조가 반갑게 그를 불러 들였다.

석린은 조용하게 인륜의 중요함을 말하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진하였다. 태조가 갑자기 얼굴빛을 바꾸며 물었다. '너는 나의 입금을 위하여 나를 설득하려 왔느냐?' 겁을 먹은 석린은 엉겁결에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씀이 거짓이리면 제 자손은 반드시 장님이 나올 것입니다.' 하였다. 어쨌든 태조는 그 말을 믿고 마음을 풀렸으며 아들 태종임금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석린의 집에 생겼다. 그의 맏아들 지도(之道)는 장님이요 둘째인 발도(發道)는 자식이 없고 지도의 아들 창산군(昌山君) 귀수(龜壽)와 귀수의 아들이 모두 백수 장님이었다.

## “지역문화예술 창작의 중심지 만든다”

### 포천예술인동우회 제16회 정기회원작품전

무더위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인들의 열정을 멈추지 못했다.

문화예술의 1번지 포천예술인 동우회(회장 이병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제16회 정기회원작품전을 개최했다.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정기회원작품전은 사진, 서예, 조각, 미술, 한지공예, 시화 등 30여명의 회원과 6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진 강동희, 강진희, 김덕기, 서예 이병찬, 박재교, 최영진, 이강욱, 김병역, 이

삼욱, 한 용, 이순휘, 윤남욱, 홍성민, 서각 손상용, 미술 홍명진, 김삼수, 김계영, 박종국, 조미경, 황광일, 한지공예 김경자, 시화 이석구, 손진홍, 여정은, 이중희, 강돈희, 하은, 나지누, 김경자, 김선희, 최영진 등 동우회원들이 참여했다.

한편 포천예술인 동우회는 지난 1989년 창립한 이래 다양한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포천의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예술인동우회는 창립이후 지난 16회에 걸쳐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포천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며 또 "포천예술인동우회를 격려했다. 이병찬 회장은 "회가 거듭날수록 작품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고무적이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한 전시회니 만큼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16일 포천예술인 동우회 제16회 정기회원작품전에서 내빈 및 회원들이 전시회 테이프커팅을 하며 축하하고 있다.

### 반월문화제 역대 수상자를 찾습니다

#### 백일장·사생·서예·사진 부문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반월문화제 20주년을 계기로 역대 수상자 찾기로 했다.

포천문화원은 포천문화예술의 원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역대수상자를 찾아 뜻깊은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참여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역대수상자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화원에서 찾은 역대수상자는 ▶백일장 장원, 차상, 차하, 장려 ▶사생·서예·사진

대상, 최우수, 우수, 특선부문이다.

역대 수상자 명단은 포천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문화원 사무국(031-532-5015)로 하면 된다.

한편 반월문화제는 지난 1987년 4백여명의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 3천여명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포천시민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37)

#### 범데미 약수와 호랑이



기괴물은 옛부터 호랑이골이라고 하였다. 국사봉 국사담 할머니신이 암호랑이였는데 추석 무렵이면 금강산에서 국사봉으로 내려와 산제사를 받고서 다시 돌아오고는 하였는데 그 위엄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산짐승을 잘 잡는 만석이금을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고 산에서 살면서 산나물 이랑 새알이랑 즐겨 채취하던 부견어미의 왼뺨을 때려 넓혀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기괴물 사람들은 늘 걱정이었다. 해가 짧은 가을이나 겨울 장을 들고 늦게 물고개를 넘어 기괴물로 돌아 올 때면 물어고개 마루에 떡 버티고 앉아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 같은 눈을

부라리고 두리번거리는지라 장날 저녁이면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가을 추석 무렵이면 국사담 집에서 마을의 안성을 비는 산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더욱 어려운 것은 호랑이 늑대들이 마을 개나 돼지를 잡아먹는지라 가족을 기르는 집이 드물었다. 그래서 평소에도 물고개를 넘는 과객들은 물고개마루에 있는 성황당에다 예를 올리고 지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들쥐를 비롯한 산·들 짐승들이 번창하여도 호랑이는커녕 늑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웬일이지? 큰일 아닌가? 산의 큰 짐승이 아니 보이고 짐

생이 짐승만 기승을 부리다니..." 또 이상한 일은 호랑모루 아래 샘물을 먹고 병을 치료하였다는 감거나 굽물이 호랑모 샘물을 먹고 치료되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년 고질병을 고쳤다고도 하였다. 더욱 놀라운 일은 충청도 사는 효자가 어머니의 심년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팔도강산 방방곡곡의 약수를 찾아 다녔는데 호랑모 샘물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을 고쳤다고 하였다.

"정말 호랑모 샘물이 만병통치약수란 말인가?"

기괴물 사람들은 고개를 가웃 등 하였더라. 마을 사람들은 궁극증을 풀기 위하여 모두 모여

의논을 하였다. "샘물 터를 살살이 뒤져보자. 무언가 영험한 증거가 나오지 않겠느냐?"

누군가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의 중의에 따라 온통 호랑이의 사라진 사연과 샘물의 영험함의 원인을 캐고자 마을을 수색하기로 하였다. 온 종일 끝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아니, 이것 봐라 이젠 호랑이 아닌가? 죽은 호랑이가 여기 있다."

불티 영감과 천식이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이 불티 영감과 천식이 소리치는 곳으로 모두 모여들었다.

큰 황소만한 백년 묵은 호랑이가 죽어 있는게 보였다. 기괴물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늑은 호랑이는 죽은 시체가 되어 씩은 샘물의 약효를 더하고는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하였다.

그래서 호랑모 샘물은 범데미(호랑이 무덤) 약수가 된 것이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화현면으로 꽃구경 오세요!

시간이 허락되면 화현면에 꽃구경러 한번 오세요. 그 동안 봄과 여름에 가꾸어 놓은 루드베키아가 2.4km나 활짝 피어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혼자보기에는 아깝습니다.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이것도 낭비가 되겠죠. 특히 아침 햇살에 피어난 자태와 비가 온 후 피었을 때 진 노란 색깔의 루드베키아는 너무 아름다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하죠.

특히 47번 국도에서 화현면사무소로 들어오는 도로변은 꽃길이 잘 조성되어 꽃 보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변을 따라 피어나는 꽃길은 자동차로 서서히 가면서 감상하셔도 아름답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한 여름의 시골 풍경 속에 폭 빠져 보는 것도 바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웰빙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 서서 사진 한장 카메라에 담으면 더욱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강승봉 화현 면장

요. 꽃구경 하시다 시장하시면 화현리 47번 구 도로 주변을 찾으시면 부담도 덜되고 외식의 즐거움도 갖는 값싸고 맛 좋은 삼박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명덕리에서 차 한잔하시면 주 5일근무의 여유시간을 보내는 감미로운 시간이 되겠죠. 그 밖에도 화현에는 산수가 좋아 운악산에는 사시사철 등산객과 관광객이 붐비고 있고, 운악천과 명덕천이 화현, 명덕, 지현리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어 농

사 짓는데 가뭄을 모르지요. 명덕천에는 송사리, 날피리, 기름종개, 모래무지 등 맑은 물에서 사는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 여름휴가철 가족단위로 천렵을 해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명덕천을 따라 조성된 5km의 테마의 거리는 최근 지역주민들이 산책과 조깅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화현면에서는 앞으로 이 거리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화현은 과거에 낙후되고 시골로 생각하던 오지가 아닙니다. 지금 화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고, 잘 정리된 주거환경과 도로망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시민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주말에 화현에 오셔서 꽃구경도 하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 보세요. 또한 가을에는 명덕리 도로변에 코스모스가 5.8km나 활짝 필니다. 봄과 여름에는 노란 루드베키아 꽃길을 가을에는 코스모스꽃길을 꼭 구경하러 오세요.

### 초대 漢詩

### 顯忠日有感(현충일유감)

以忠報國保疆元 (이충보국보경원)

이충보국은 나라의 근원을 보호하고

一片丹心節意存(일편단심절의존)

일편단심 절의가 있기 때문일세

風雨紛紛多落魄(풍우분분다락백)

풍우가 분분하니 많이 떨어지고

雲山漠漠又銷魂(운산막막우소혼)

운산이 막막하여 혼이 사라졌네

可嘆世味偏他苦(가탄세미편타고)

세상이 편벽하여 괴로움을 한탄하고

只怪人精妄自尊(지괴인정망자존)

괴이한건 인정이라 저 자신이 망령일세

回復主權宣布利(회복주권宣布리)

회복주권하여 만방에 선포하고

高揚太極顯彰恩(고양태극顯彰은)

태극기를 높이들어 순국영령의 은혜를 현창하리



李昌秀 前 吉明祠都有祠

### 초대 詩

### 감자가 쏘아졌다

계단을 뛰어 오르다 넘어졌다  
바구니 속을 드러내며  
우르르 쏟아진다  
전혀 문을 빠져 나오는  
사람들 다리사이로  
몰아지며 구르고 구른다  
어떻게 몸을 팔아 산 것인데  
밭히고 차이고 뜰개지며 일그러진  
흙집이 난 감자를 집을 때마다  
역한 발 냄새  
화려한 부활을 꿈꾸었던

마음 구겨져 거리에 떨어진다  
얼굴엔 빨간 꽃이 핀다  
늑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등골기 식은땀이 흘러도  
상처 난 감자를 줌는다  
내일 아침 식구들이 물러앉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자  
이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는가



哈正家 마흥문화회 회원